

익산시 대표 관광지 백제왕궁 봄밤을 밝힌다

‘익산문화재 야행’ 12일 개막 왕궁리유적·탑리마을 일원 8夜 주제 37개 체험 프로그램 운영...문화해설사도 동행

“백제왕궁 봄밤을 밝힌다.” 익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익산문화재 야행’이 12일부터 이틀간 백제왕궁 일원에서 개최된다. 왕궁리유적과 탑리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야간형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8夜를 주제로 37여개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된다. 특히 체험형 프로그램 배치, 지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강화, 유·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콘텐츠 보강,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수목조명을 확대 설치해 방문객을 맞는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축소하고 왕궁후원에서 열리는 퓨전 버스킹 공연, 디지털로 체험하는 ‘문화유산 환상의 VR’, 주말공예를 활용한 ‘백제공방 체험’ 등 문화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문화해설사와 동행하는 ‘백제왕궁 후원산책’을 통해 문화재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국악공연과 함께 왕궁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코스도 가미됐다. 이번 야행 기간에는 행사장까지의 교통 불편과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시티투어 순환버스가 운행된다. 순환버스는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시내에서 왕궁리 유적까지 왕복하며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야행은 단순 문화재 관람이 아닌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연과 전시, 체험 등 테마 위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채로운 봄밤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익산문화재 야행’이 12일부터 이틀간 백제왕궁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행사 모습. <익산시 제공>



정읍 ‘쟁화차 거리’ 활성화...청년창업물 운영자 모집

정읍시는 쟁화차거리(사진)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물 운영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모집대상자는 만18세부터 만45세까지의 창업희망자다. 시는 창업희망자 모집을 위해 보조금 환수 조건을 사업 양도·양수 또는 포기 시 3년으로 설정했다. 또 신청일 현재 정읍지역에 거주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물은 총 4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1개소 당 370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창업희망자에게 리모델링비 3000만원과 임대료, 공공요금, 컨설팅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정읍쟁화차거리(정읍세무서-양자강) 내 빈 점포 건물주와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쟁화차와 관련된 창업 아이템으로 거리와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건을 완화하여 재공고한다”며 “청년창업물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 젊은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멧돼지 포획틀 대역 사업’ 추진

봄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 적성·상치 등 4개면

순창군이 봄철을 맞아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멧돼지 포획틀 대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봄철 번식기에는 멧돼지들이 먹거리를 찾아 산 밑으로 내려와 밭작물의 새순을 먹는 등 피해가 커 멧돼지 포획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군은 이달까지 포획틀 구입을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복흥, 적성, 금과, 쌍치면 등 총 4개면에 대역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포획틀 대역은 해당 면사무소를 통해 각 마을별로 운영되며, 대역기간은 2~3개월

이다. 사용시 필요한 안전 교육과 함께 먹이준비 및 유인방법 등 사전교육도 병행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순창군 전역에서 수렵장을 운영해 멧돼지 462마리와 고라니 1114마리 등 총 2만7850마리를 포획해 농산물 피해 예방에 일조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포획 성과를 판단해 향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남원성 터 일대 중앙공원 이름 ‘만인공원’으로 바꾼다

남원시는 정유재란 당시 1만 의사가 순절한 남원성 터 일대의 중앙공원 이름을 ‘만인공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종전의 중앙공원은 남원성 터 일대에 놓였던 남원역 철로를 시내 외곽으로 옮기며 2000년 12월에 4만1247㎡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 남원의 중심지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중앙공원으로 이름 붙였다. 그러나 이 터가 1만 의사가 최후의 항전

을 하다 순절한 남원성 복원이 있던 곳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다. 복원은 일제가 1935년 문과 성곽을 헐어내며 사라졌으며, 최근 남원시가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성의 역사성을 살리고 1만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미래세대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목포·신안·진도지역 유아·초·중·고생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에 들어갔다. 프로그램은 목포시와 신안군, 진도군 소재 유아, 초등,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해 오는 11월까지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돌피니 바다유치원’은 26개 유치원(어린이집)의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 예정이며 바다와 함께하는 오감체험을 통해 유아의 감성발달을 도모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돌피니 환경교실’은 국립공원공단이 자체 개발한 환경교육 교재를 통한 학년별 맞춤형 수업으로 11개 초등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이달 1회 이룬 수업과 체험 학습으로 해당

학교에서 운영된다. 중·고등학생 대상 ‘자유학년제 및 주니어래인저’는 국립공원 직업체험과 환경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예정이며 예코 불런티어 활동과 국립공원 업무체험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다. 자유학년제 및 주니어래인저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유치원과 학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061-284-9116)로 문의하면 된다. 장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지역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세대 녹색리더로 성장할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9월 순천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산업통상자원부·균형발전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주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9월 25~27일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박람회는 2004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지역박람회로,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장이다.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그동안 박람회는 대형 전시관을 보유한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

으로 공모한 결과 접수한 8곳 가운데 순천시가 선정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순천시는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혁신사례를 만들어낸 지방 강소도시로 꼽힌다. 또 도시재생을 통한 청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를 활용한 도농상생, 마을자치 실현 등도 모범사례에 든다. 산업부와 균형위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자연·생태·정원 등을 활용한 새로운 균형발전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고창군, 농공·산단 71개 업체 ‘지방세멘토링제’ 운영

고창군은 지역의 기업을 찾아 지방세 납부를 도와주는 ‘지방세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부터 4개 농공·산업단지 에 입주한 71개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지방세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세 멘토링을 통해 지방세 감면혜택과 자진신고 안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체납지방세관련 처리 사항 등을 상담했다.

상담을 통해 기업들은 융자금 지원에 대한 요청, 재로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택배비지원, 군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 원료 가공에 따른 복분자 생산량 확대 등 의견과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해 4개 농공·산업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59억91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방**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8500만원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매매 - 7,5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